

SIN TAE YANG

新嘉坡新泰陽有限公司
總經理：許志成
地址：新嘉坡牛車水
電話：222222
電報：新泰陽
郵政編號：08000

新太陽

新年號



1964年

拉致人士 337 名生存通報를 받기까지

被拉人士生還確認者名單은 수만
拉致人士三三七명이 살아있나니고, 大韓赤十字社는 통화에 끝난
예상하는 남자인사 유가족에게歡喜다希望을 전해 드렸다. 제주도에서 生死確認通報가入手되리라는
當局者の 謐別도 군대에 드문 기재로消息이 이 名單을 업기자마자 외국 대표단의 心과 第十九次 國
開港十字會議의 標相을 아울러서詳報하였던것이 横濱港에 船舶이 있었지만 「아직 七千餘名의 生死確
認문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公開할 시기가 아니라」는 當국자의 사정으로 끊임을 이루었고, 이 기
「公開할 수 있는 領度內」에서 그간의 경위와 友邦諸國의 協助을 四耕部서 取材해 알려드리기도 했지.



한국의友人—「햇쌀」

제네바에 있는 國際赤十字委員會의
위원회에 「쥘리昂·H·밀튼」이라는 「스
위스」 사람 있다. 그는 한국의 남자
인사 문제에 대하여 자대한 관심을 가
졌으며 남자인사가족들의 비참한 생
활에 무한한 공세를 표시해 온 한국
의 친구다.

그가 이렇게 한국 문제에 대하여 비
상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四二八
九年 국제赤十字 위원회 차적으로 東
南亞十六개국을 巡訪한 끝에 우리 한
국에 들려서 치기 한국의 사정을 목

제하고 문아간 후 부녀의 일이 있다
「몇월」씨를 首班으로 하는 두명의 국
제전설자 대표가 来韓했을때(國二八九
년 純祖九歲) 그가 동남아 자국을
순회했을뿐만 아니라 북한계의 봉
城인 平壤을 거쳐서 서울에 입경하였
다고 해서 우리들은 혹시나 날치인
사문재에서 꽁이 비치지나 않을까 —
하는 희망으로 그의 一舉一動을 주목
하였다. 그를 마지막 대한국설자사
에서는 당시 國일간에 걸쳐 비밀회의
를 개최하였는데 그에 論議된 의제
는

물제, 欢共애국포로 총환문제,
셋째, 印度로 진내간 한국포로문제
넷째, 일본大村敬客所에 억류된 교
포의 석방문제.
이상의 네 가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끝에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해
서 국제적 실무 위원회가 협조하겠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것이다.
그때의 우리대표들의 주장은 「남치
인사의 遂還要求」였다. 그러나 「총환」
의 실현 가능성성이 전연 협정되어 있어서
그럼 「남치인사의 所在안이라도 確認
해달라」 — 는 주장으로 변하였다가
결국에 가서는 「往致人士의 生死안이
라도 확인하자」 — 는 결론에 도달하

그것은 북한미회족의 종래의 주장였던 것이다. 그것이 「남치인사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이 「남치인사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있으므로 어쨌던 남한술신의失利이니까 그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 그것마저 그 이것만을 알려달라는데 그것마저 그들이 거부하지는 못하리라……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서 남치인사의 「생사 확인」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金信實女史

傀儡代表와의 論戰

(부터) 그 뒤에 그 결과는 약 50명명이
말하리라는 예상이 있었던것이 뜻밖에도
seven thirty four 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나타
났다.
물론 의용군으로 나간 사람과, 자진
월북한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八월十五일로 등록을 마감한 적십
자사에서는 seven thirty four 명의 명단을 확
정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하여 북
한으로 발송한후 정사동
지가 도착할날을 기다렸
으나 북한측의 반응은 전
혀 없었다.
그간 우리측에서는 제
네바를 통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북측도 했지만, 아
무런 반응도 못받은
초조한 하루하루를 지내
온 것이다.

『우리는 벌써 八 개월 전에 生死未
定이다. 그제나 광산속은
『국개의 분파위원회와 전체총회에
서서 해결하도록 앞서하였다』
요망스런 대도를 취하였는데 우리
표는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 표율은 「잇세」^{一色}에
기록된 사전재료를 제시
하고 또한 남자인사가 죽
음을 직접 만나보도록 알
선하였다. 이리하여 한
국의 남자인사 물체에 관
심과 동정을 품게 된 「잇
세」 대표는 그가 한국을 떠나기 전의
어느 私處에서 주전자와 서울에 대한 인
상을 말하여 「제양은 都市 춤드라:
그런데 서울은 아름하다」는 지극히 정
법하면서도 曾未的인 한마디를 남기
고 한국을 떠났던 것이다.
「잇세」이 다녀간것을 계기로 대한
천성자사에서는 남자인사의 耻辱을 시
작하였다. (西二八九년 六월 十五일)

이렇게 문제의 해결을 보자 못한
第十九次 國際赤十字會議를 마치하였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대표로 註
比金勳公使과 註日代表部의 崔圭夏參
事官(參事官 대표로) 金信實(金信實) 사(李
元錫)씨가 참석하게 되어 지난 10월 2

우리는 벌써 八九월에 生到達
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산족은 우
리의 요구에 부당하게도 불응하고
있다. 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
가? 남자 인사의 생사여부마저 통
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非人道의 이요
잔악한 만행이 아닐수 없다.”

적인 선전작전을 공박하고, 그들의 발
연취소를 요구하였는데 그 요구는 다
음과 같다.

우리문화

언은 정치적인 얘기다. 국제적 실자 회의는人道的인술議자 절코 정치 회의가 아니다. 북한대표의 발언은 이곳에서 할 발언이 아니니 취소해 야 한다.]

결국, 전후 三차에 걸친 우리대표 와 북한대표의 舌戰끝에 북한적십자 대표는 의장으로부터 발언취소를 통 용받게 되어 그들의 발언을 취소하였는데 회의 최종일에는 중도에서 회장을 해버렸으며 이내 공산쪽의은 모두 회장하였다.

원회에 대하여『생사함지 마저 성사하지 못하는 무능』을 맞하고, 직심자 위원회의『기능을 의심한다』는 강경한 抗議文을 제출하였었는데 회의 기간 중에 회의에 제출되는 회의에 대한 대처에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수 차례에 걸쳐 주파를 던져왔으나, 굳내『만날 필요 없으니 회담이나 빌리하라!』는 거절 을 당하였다.

기도하였지만, 자국대표의 반응이 없어서 提議조차 못하고 끝살되었다.
·한국대표단은 人權分委와 保健社會分委에 主力を 둔아가며, 남자인사들 의 소식을 알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공식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채 회의는 끝나고 말았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면서 스위스의 국제적인 자선인 「미셀」씨를 부터 金信實 대표에게 전화가 전려왔다. 「당신과 단 블이 만나고 싶다.」 김선설 대표가 「미셀」씨의 호텔에서 그와 반년 시간은 밤 九시였다. 「미셀」은 김대표에게 뜻밖에도 三三七정의 남자인자 名單을 주交하였다.

렇게 얘기하고 갔다.”

시에 주재하고 있던
외신기자들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만 회의 출판부 앞에
서의 사건을, 쟁쪽같
이 모르고 있었다. 그
번에 「잇센」이 어미한
경위로 그 명단을 입
수하게 되었는지에 관
해서는 「아직 밝힐 시
기가 아니라」는 것이
대학처신자사의 태도
였다.
이렇게 하여 일부나
마남치인사의 소식을
확인하고 귀국하던 날
— 김신설 대표는 비행
장에서 서울방송국 기
자와의 마이크 인터뷰
를 통하여 「이번 우
리의 성과는 성공이 확
고도 할 수 있고, 아니
라고도 할 수 있다」
는 치국히 애매한 한
마디를 던졌을 뿐이었
다. △記者△

美客在現代的經！

歐美各國 告白是美容
器具常用하고 있습니다



營業과 濟白의 营業類
회원비 대수비
거준법률·이론법률
전수증·거체증
회계증

10.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number of hours worked by 1000 employees.

最强力美容剤
新美 오바홀 모美容크림

無視 他用於改善量測、打擊力、耐壓能力、費用率增加一倍

全國有名酒
發賣中
北經外店或有

로 남치인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절의
안을 철회하였다』는, UP 흥선보도로
인하여 당시 국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人權分委에 「카나다」가
제의한 案件이 대한민국의 領의안과
똑같은 — 천정 혹은 사변으로 인하여
서로 해어진 가족들은 하루속히 만나
도록 해주며 그 성사를 가족과 연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도적인 입장
에서 국제적 심사의 할 일이다 — 하는
내용이었다.

다면 『十字의 意義가 브엇인가?』
이문제는 국제적 실자 위워회 막이 해
결할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공산
측은 남치인사가 없다고 주장하지
만, 국제적 실자 위워회는 한국에서
남치인사들의 가족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직
접 들은 것이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 한국의 주장과
을 충분히 고려한 김신설 대표는, 우
리의 결의안이 「카나다」의 제안과
일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선
언했는데이것이 UP 총선에 와전되
었던 것이라고 한다.

七十七個會員國과十六개국 「음서
어」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서성자회의
는十一—二十四일부터十一월七일까지
계속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공산
대표는 무역을 빼으나 한국대표를 수
용창한 영어로 응수하였다.
동양통신 대표중의 이성대표는 한
국의 金信實이 사문이어서 舞彩를 퍼
었다.

일본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大村收容所문제로 과동을 일으키며 고